Market Wra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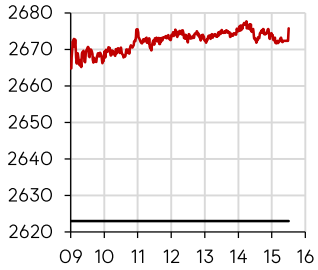
주식시황. 조준기 3773-9996 junkee.cho@sks.co.kr

SK securities

2024-0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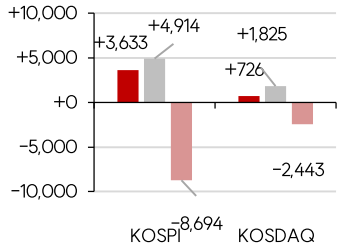
계속 실적에 집중

KOSPI 일중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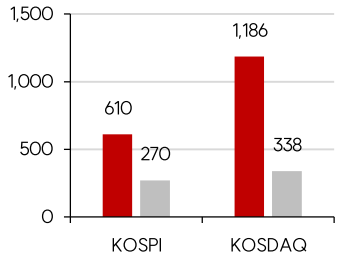


KOSDAQ 일중차트

수급 동향(기관/외국인/개인)(억원)



상승/하락 종목 수



지난 주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는 모습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오늘 2% 내외의 강세를 보임. 미국 쪽에서의 호재들이 지수 급등의 주 요인. 미국 PMI 쇼크가 금리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주며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었고, 미장 종료 이후 진행된 테슬라와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실적발표 이벤트가 아시아 증시 전체적 강세로 연결

오늘 새벽 미국 증시 종료된 후 발표된 테슬라 실적은 어닝쇼크 기록. 매출과 EPS 측면에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음(EPS 컨센서스 0.49, 실제치 0.45 / 매출 컨센서스 22.22B, 실제치 21.301B). 그럼에도 내러티브가 숫자를 덮고도 남아버리며 시간 외에서 13% 상승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컨퍼런스콜에서 저가형 모델을 올해 말~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로보택시, AI, FSD 등 내러티브를 강하게 어필했고 이게 먹히며 주가가 급등. 물론 올해 Magnificent 7 종목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전체로 보아도 가장 부진한 퍼포먼스를 기록해 오면서 바닥 심리가 작용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생각. 국내 2차전지 기업들까지 온기 확산되며 전반적으로 강세. TIGER 2차전지테마 +3.80%. 여기에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도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EPS 모두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전망 또한 낙관적으로 제공. 이에 국내 반도체 업종도 초강세(KODEX 반도체 +4.41%, SOL AI반도체소부장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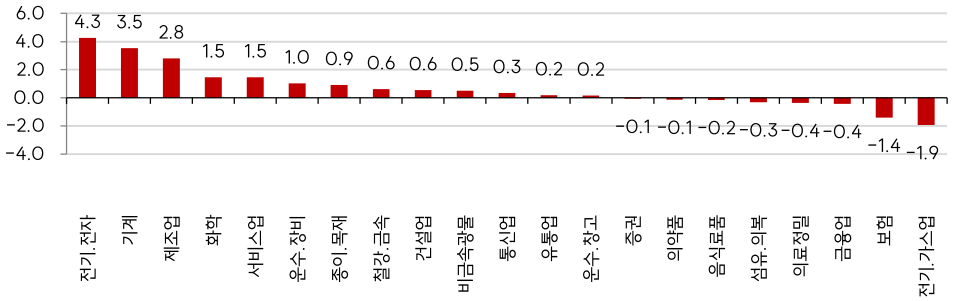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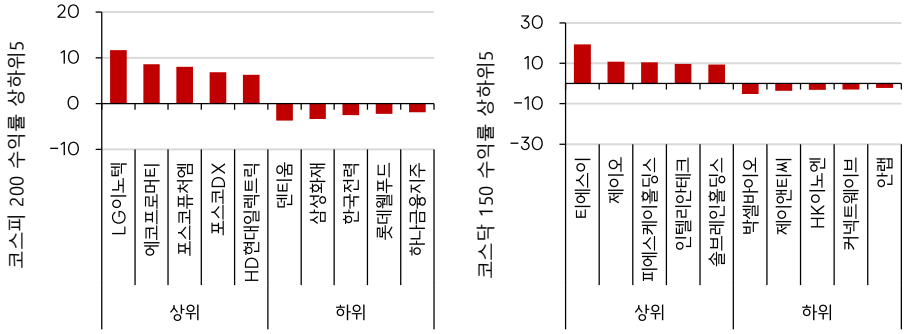
국내 대표 업종들인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가 강하게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코스피는 60일 이평선 회복 및 볼린저밴드 중단 근접, 코스닥은 200일선 상회 및 60일선에 닿음. 장중 흐름도 최근의 고변동성과는 거리가 있어 지수도 많이 오르고 장중 흐름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 선물을 조금 팔고 나머지 시장(코스피 현선물, 코스닥 현물)을 많이 순매수.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물은 순매수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그 이상으로 순매도

지수기여도 측면에서도 당연히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랭크되었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22.5pt), SK하이닉스(8.1pt), LG에너지솔루션(4.5pt), 포스코퓨처엠(2.2pt), 한미반도체(1.4pt), 삼성SDI(1.3pt), LG화학(0.9pt), 에코프로머티(0.8pt) 등,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2.5pt), 리노공업(0.5pt), 이오테크닉스(0.4pt), 티에스이(0.2pt), 피에스케이홀딩스(0.2pt), 하나마이크론(0.2pt) 등

당분간 계속 인덱스는 기업 실적과 그에 대한 시장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고변동성 장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개별 기업 실적발표 전에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는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로 보임. 지난 주 TSMC와 ASML 실적으로 생겼던 ex-AI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잠정실적 발표 생략으로 생긴 AI의 폭발력에 대한 회의감은 다행히 이번 주 실적발표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이번 주 남은 빅테크 실적에서 의구심을 완전하게 눌러주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메타는 내일 새벽, 마이

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금요일 새벽 예정. 애플과 아마존은 다음주로 잡혀 있음. 오늘 미국 장 개장 전에는 AT&T와 보잉, 폐장 후에는 메타와 함께 IBM과 램리서치, 포드 등 실적 발표 예정이며 국내 증시는 내일 SK하이닉스 실적에 주목

KOSPI 업종별 수익률 (단위: %)



KOSPI 200 및 KOSDAQ 150 수익률 상/하위 5종목 (단위: %)